

학교 작업치료사의 근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배원진*, 정남해**

*동강대학교 작업치료과 조교수

**동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작업치료사의 근무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이다. 참여자는 학교 작업치료사 7명으로 모두 여성이고, 평균 근무경력은 5년이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작업치료사로서의 근무 경험에 관하여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부가적인 인터뷰 내용 확인은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연구자가 녹음을 여러 번 듣고 전사하여 Colaizzi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2개의 주제와 10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로는 어려움과 희망이 도출되었다. 어려움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물리적 환경 제약, 교사 또는 교직원의 인식 부족, 불안정한 고용, 학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작업치료사가 있었고, 희망에는 아동에 대한 사명감, 같은 목표를 가진 팀원, 학교 작업치료를 원하는 아동들, 교사의 만족, 작업치료발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하위 주제가 있었다.

결론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학교 작업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작업치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 교육, 작업치료, 장애아동, 치료지원, 학교, 현상학적 연구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교육은 작업치료 실행체계(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Fourth

Edition; OTPF-4)에서 중요한 수행영역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학습 참여에 필요한 활동들을 말한다. 교육에는 읽기, 쓰기, 수학 등의 수업 참여를 의미하는 학업 외에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포함하는 비 학업, 동아리 등의 과외활동, 직업 전 및 직업교육 활동 등이 포함된다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20).

교신저자: 정남해(whitenam-hae@nate.com) || *이 논문은 2022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DSU-20220006)

접수일: 2022.06.17.

|| 심사일: (1차: 2022.07.12, / 2차: 2022.08.17.)

|| 게재확정일: 2022.09.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Ministry of legislation, 2022a)」에 따르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지원, 보조 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합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치료를 학교 작업치료사(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라고 한다.

학교 작업치료사는 아동이 학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업과 사회적 활동, 과외활동, 독립적인 일상생활 활동, 직업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학교 작업치료사는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과 같은 학교 내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동을 평가 및 판별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아동을 위한 계획된 중재를 제공하고, 성과에 대해 문서화한다. 또한 팀 구성원으로서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에 참여하고, 교사와 함께 아동의 수행을 돕는다(Bose & Hinojosa, 2008). 학교 작업치료사는 다 전문적 협업 중재, 직접 중재, 상담, 관련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돕는다(Pyo, 2012, Spencer, Turkett, Vaughan, & Koenig, 2006;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2016).

국내 학교 작업치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작업치료사를 고용하여 작업치료를 지원하는 방식과 지역사회 기반 치료제공 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교육청 소속 학교 작업치료사는 매년 치료지원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학교로 방문하여 순회 치료지원을 제공하거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작업치료실로 방문(내방)한 아동에게 치료지원을 제공한다(Jeong, 2009). Song, Lee와 Kim(2010)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자 부모는 사설 기관보다 학교 작업치료에 관해 신뢰하고 선호한다고 하였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3년간 작업치료사 면허신고자 중 비의료기관 종사자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총 1,972명 중 학교에 근무 중인 인원이 87명(4.4%)이고, 2019년 637명 중 14명(2.2%), 2020년 713명 중 15명(2.1%) 으로(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2),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는 교육청, 학교 등 기관 및 지역마다 소수로 일하고 있으므로 환경이 다르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일상생활의 의미와 생생한 경험을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자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국외에서는 Bose와 Hinojosa(2008)이 학교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교사와의 협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였고, Prigg(2002)는 장애아동의 학교 전환에 대한 학교 작업치료사의 경험에 관하여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Rens와 Joosten(2014)는 교사와 학교 작업치료사, 교장, 교사를 포함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학교 작업치료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았다. 이렇듯 국외에서는 학교 작업치료사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들의 경험에 관한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교 작업치료를 대상으로 학교 작업치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참여자들은 의도적 추출과 눈덩이 추출법으로 섭외하였다. 학교 작업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직접 작업치료 중재를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7명으로 모두 여성이었고, 평균연령은 30.5세, 평균 경력은 5년이였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umber	Gender	Age (year)	Education	Career (year)
1	Female	29	Bachelor	5
2	Female	31	Bachelor	7
3	Female	32	Ph.D candidate	6
4	Female	30	Master	5
5	Female	28	Bachelor	4
6	Female	27	Bachelor	3
7	Female	30	Master	4

Table 2. Interview questions

Questions
• Tell me about the work as a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
• Tell me about a challenge you experienced as a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
• Tell me about a positive experience you had as a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

2. 자료수집

연구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었다. 인터뷰는 2명의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연구 질문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Prigg(2002)를 참고하였다. 연구자는 첫 만남에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IRB 승인을 받은 참여자설명문과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식별을 위한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비밀번호로 보호되고 있는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각 60~80분간 실시하였다. 인터뷰 동안, 연구자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본 연구는 Dongseo University in Republic of Korea에서 승인받았고, IRB Number는 2019-001-HR-01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Colaizzi(1978)의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연구자는 참여자의 의도와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전사된 자료를 지속해서 읽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구절과 문장 등 ‘의미 있는 진술’을 표시하고 이를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하였다. 여기에서 확인한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은 추후 학술적인 글로 작성할 때 의미의 구조화

에 활용하였다. 도출된 의미는 하위주제(sub-theme), 주제(themes), 범주(category)로 구조화하였다. 연구내용을 기술할 때 현상을 바탕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 중 한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각 개인적인 속성에 집중하는 Giorgi의 연구 방법과 달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분석 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일반적이고 학술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을 확인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모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기술하기 때문에(Kim et al., 1999)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의 근무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마지막으로 인터뷰 내용이 구조화되고 난 후, 내용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은 요약을 확인하면서 내용에 동의하였다. 독자가 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내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일부 직접 인용하였다.

4. 질적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연구의 엄격성을 준수하고자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

성을 지키고자 하였다(Shin, 2004. 재인용).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가 실제 현상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여러 차례 반복 확인하였고, 이메일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을 검증받았다. 둘째, 적용성은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로 전국의 학교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신뢰도를 말한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자료 분석 시 연구자 외에 학교 작업치료에 관한 임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작업치료학 전공 교수 2인이 참여하여 각각 분석하고,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독립성은 연구의 객관성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자의 편견이 자료 분석 및 의미 도출 시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II. 결 과

면담 내용은 2개의 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로 도출되었다(Table 3). 2개의 주제는 어려움과 희망이었다. 어려움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물리적 환경 제약, 교사 또는 교직원의 인식 부족, 불안정한 고용, 학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작업치료사가 있었고, 희망이라는 주제에는 아동에 대한 사명감, 같은 목표를 가진 팀원, 학교 작업치료를 원하는 아동들, 학교 작업치료에 대한 교사의 만족, 학교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발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하위 주제가 있었다.

1. 학교 작업치료사로서 경험하는 어려움

1)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학교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직접 중재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와 더불어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학교 작업치료사의 주 업무는 대상 아동의 학교 적응 및 작업 수행을 돕는 것이다. 아동의 학교 적응 및 작업 수행을 돕는 업무의 확장으로, 대상자 관리 및 가족 지원프로그램,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도 있었으나, 작업치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행정적인 업무에 치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OO 지역은 작업치료사의 치료대상자는 2~3명밖에 되지 않고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해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작업치료사가 치료를 하는 것보다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2) 물리적 환경 제약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는 대부분 교육청 소속으로 순회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작업치료사가 중재를 제공하기에는 환경 및 맥락이 제한적이다. 특히 모든 참여자는 공간 문제를 가장 힘들어하였다.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개별공간이 없어서 방송실이나 급식실과 같은 다른 용도의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고, 책걸상이 없어서 아동이 불편한 자세로 치료

Table 3. Structure of work experiences of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Themes	Sub-themes
Challenges as a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	Poor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Burden on administrative work
	Restriction of physical environment
	Limited awareness of teachers and staff
	Instability of employment
Hope to have as a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as a 'medical technician' working at school
	Commitment to children
	Team members with the same goal
	Children wanting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Teacher satisfaction with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Responsibilities for the advancement of occupational therapy

를 받거나, 시끄럽다며 쫓겨나는 사례도 있었다. 필요한 치료 도구는 매 회기마다 치료사가 가지고 다녀야 했다.

제가 차가 없어서 모든 도구를 들고 다녀서 많이 어려웠는데

작년에 배정된 아동 중에 뇌병변 편마비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치료 공간으로) 책걸상이 없는 종일반 교실을 주더라고요. 그 아동이 앉는 게 불편해서 다른 공간을 요청했지만, 교직원분은 그냥 어쩔 수 없다고만....

(공간이 없어서) 교직원 식당에서 (치료를) 했었어요. 의자도 회전식 의자이고 책걸상도 높았어요. 돌아다닐 수도 없었고, 치료 중 조리사 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3) 교직원의 인식 부족

학교 작업치료사는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 교장, 직원 등의 교직원은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인식의 부족은 결국 전문가 간의 이해, 배려 및 협업을 어렵게 하였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작업치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를 더 하거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회 치료를 보통 일반교과 시간이나 특수학급 교과 시간에 하거든요. 교사 입장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깐 교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고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4) 불안정한 고용

학교 작업치료사는 치료지원 인력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수인력이 아니다. 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전문 직종 중 교육감의 재량으로

선택하여 갓출 수 있는 인력이다. 학교 작업치료사의 수가 적고, 일하고 있는 학교 작업치료사의 고용 형태도 무기 계약직이라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관련하여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작업치료사 대신 다른 직종으로 고용하겠다고요.

사직하면, 작업치료사 외에 다른 직종으로 채용하는 것도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학교 작업치료사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깐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5) 학교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작업치료사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다. 의료기사에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안경 공학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언어치료사 등이 포함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경우, 평가 및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개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정신의학과 의사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 (Ministry of Legistration, 2022c). 하지만, 학교 작업치료사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의료기사이기 때문에 학교 작업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다. 학교 작업치료사는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작업 수행을 행하는 현장에 적응하고 작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결국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모순된 상황이었다.

작업치료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교육청에서 인력을 줄이려고 하시거든요.

전국적으로 치료지원사업을 할 때 진단서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업치료를 하기 전에 매년 병원과 촉탁의, 협력 의사를 두고 처방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모를 방패막이라도 하나 두려고.....

2. 학교 작업치료사의 희망

학교 작업치료사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희망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동에 대한 사명감, 같은 목표를 가진 팀 구성원, 아동의 요구도, 타 전문가의 만족도, 책임감 등은 학교 작업치료사에게 희망이라는 의미가 있다.

1) 아동의 작업 수행 향상에 대한 사명감

많은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교 작업치료사들은 아동의 작업 수행 현장인 학교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동의 작업 수행을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동의 작업 수행 향상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선생님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작업치료사의 역할이고요.

2) 같은 목표를 가진 동력 자

학교 작업치료사는 종종 교직원이나 부모 등 팀 구성원들과의 소통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및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팀 구성원이 아동을 사랑하고 아동을 위해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학생, 교사,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든 목표가 아이 한명 한명이 학교를 즐거워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 같거든요. 교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3) 학교 작업치료를 원하는 아동들

학교 작업치료사들이 만나는 학생들은 학교 작업치

에 대한 기대, 치료사에 대한 신뢰, 자신의 목표가 있었다. 학교 작업치료사들은 이를 통해 힘을 얻었다. 학교 작업치료사들이 만나는 아동들은 원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고, 이를 위해서 학교 작업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원하는 목표가 항상 있더라고요,

(아동들은 본인이) 사설 치료실에서 무엇이든 잘하지 못하면 치료사가 바로 부모님께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동들이 부모님한테는 본인의 학교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만나니깐 아동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폐 아동이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엄마예요~” 하더라고요. 순간 몽클했던 기억이 있어요.

4) 교사가 느끼는 학교 작업치료에 대한 만족

학교 작업치료사에 대해 보수적인 교사도 있지만, 일부 학교 작업치료사들은 일부 교사가 학교 작업치료에 관해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인정하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해 향상되는 걸 느끼고 있어요.

5) 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한 학교 작업치료사들의 책임감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 작업치료사들은 국내 학교 작업치료영역에서 선구자이다. 이들은 선구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이었다.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니깐 제가 움직이지 않으

면 선생님들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사람의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IV. 고 찰

본 연구는 학교 작업치료사들의 근무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학교 작업치료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어려움과 희망이라는 주제가 도출되었다. 학교 작업치료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에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물리적 환경의 제약, 교직원의 인식 부족, 불안정한 고용, 의사처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학교 작업치료는 '교육청' 또는 '학교'라는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선행 연구에서 많은 교사들이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가 낮다고 보고한 결과(Vincent, Stewart, & Harrison, 2008)와 유사하게 연구참여자들은 교직원 등이 학교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작업치료사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Nochajski(2002)는 교사와 치료사 간의 협력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 전문 지식 및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하였다. 학교 작업치료사와 교사 간의 소통 및 협업을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Kennedy et al., 2020; Missiuna et al., 2012). 먼저, 학교 작업치료사는 교육환경 내에서 작업치료를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학교 작업치료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3가지 어려움이 드러났다. 첫째, 의사처방의 문제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Ministry of Legislation, 2022b). 학교 작업치료사는 교육청 소속의 직원이지만 의료기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에 학교 의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중재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학교 작업치료사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는 Kang(2018)이 앞서

지적한 바 있다. Kang(2018)은 학교 의사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불안정한 고용이다. 현재 본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한 Kim과 Kim(2010)과 Oh와 Kim(2010)에서도 학교 작업치료사들의 불안정한 고용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작업치료사는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필수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직종으로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Jeong(2009)은 질적으로 향상된 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소 등의 물리적 환경의 확보, 전문치료사의 양적 확보,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다. 이는 기관의 특성과 더불어 치료사들의 업무 범위 및 복무에 관한 지침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수교사 또한 작업치료사와의 협업을 위한 복잡하고 많은 행정적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Han, 2021).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학교 작업치료사들의 경험을 통해 학교 작업치료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학교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희망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희망에는 학교 작업치료사의 장애아동과 국내 작업치료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교사 및 아동의 만족, 같은 목표를 가진 팀원이 있었다. 학교 작업치료사의 장애아동과 작업치료발전에 대한 사명감은 앞서 언급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같은 내재적 희망 외에도 교사, 아동, 팀 구성원과 같은 주변 사람으로 인한 희망도 있었다. Vincent 등(2008)이 보고하길 교사들은 다른 교사 또는 작업치료사, 학부모와 협력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교사가 학교 작업치료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아동을 위해 노력한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 작업치료사들이 교사와의 소통 및 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학교 작업치료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희망'을 바탕으로 개인적 노력으로 일부 개선되기도 하지만, 지속해서 아동의 작업 수행 향상을 돕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

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근무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였다. 국내 학교 작업치료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필수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전국의 학교 작업치료사의 수가 적다.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물리적 환경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실제 학교 작업치료사들의 경험을 통해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물리적 환경 제약, 불안정한 고용 및 의사처방, 교사와 협업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이 드러난 반면, 아동과 작업치료 발전에 대한 사명감, 주변의 만족 등의 희망이 드러났다. 학교 작업치료사 개인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과 조직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 작업치료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참고문헌

-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20).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Fourth 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 7412410010p1-7412410010p87.
- Bose, P., & Hinojosa, J. (2008). Reported experiences from occupational therapists interacting with teachers in inclusive early childhood classroom.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 289-297.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eong G. S. (2009). *Current status of treatment support service and future direction*. Field Special Education. Retrieved 22 August, 2022, from <https://www.nise.go.kr/>
- Kang, M. J. (2018. 10. 4). I with there was a doctor in a special school. *Ulsan Journal*. Retrieved 22 August, 2022, from <http://usjournal.kr/news>
- Kennedy, J. N., Missiuna, C. A., Pollock, N. A., Sahagian Whalen, S., Dix L., & Campbell W. N. (2020). Making connections between school and home: Exploring therapis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ies in partnering for chang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83(2), 98-106.
- Kim, B. H., Kim, K. J., Park, I. S., Lee, K. J., Kim, J. K., Hong, J. J., ... Lee, H. Y.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Kim, S. Y., & Kim, S. J. (2010). A survey on the status of supporting center for special education and school based occupational therapy.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18, 53-67.
-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22).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ists*. Retrieved 22 August, 2022, from <https://www.kaot.org/pds/stat.jsp>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inistry of Legislation. (2022a).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Retrieved 22 August, 2022, from <https://www.law.go.kr>
- Ministry of Legislation. (2022b). *Constitution*. Retrieved 22 August, 2022, from <https://www.law.go.kr>
- Ministry of Legislation. (2022c). *Act on medical technicians*. Retrieved 22 August, 2022, from

<https://www.law.go.kr>

- Missiuna, C. A., Pollock, N. A., Levac, D. E., Campbell, W. N., Sahagian Whalen, S. D., Bennett, S. M., ... Russell, D. J. (2012). Partnering for change: An innovative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delivery model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9*(1), 41-50.
- Nochajski, S. M. (2002). Collaboration between team members in inclusive educational settings. *Occupational Therapy in Health Care, 15*, 101-112.
- Oh, H. W., & Kim, S. Y. (2010).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therapy support service professionals at schools and support centers for special education: Centered on occupational therapy majo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8*(2), 23-37.
- Park, S. J., & Han, K. G. (2021). Teacher's perceptions of cooper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and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7*(2), 47-71.
- Prigg, A. (2002). Experiences and perceived roles of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with children with special learning needs during transition to school: A pilot study.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49*, 100-111.
- Pyo, Y. H. (2012).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therapeutic support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and Health Disabilities, 55*(3), 251-276.
- Rens, L., & Joosten, A. (2014). Investigating the experiences in a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to inform community-based pa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61*, 148-158.
- Shin, O. S. (2004). Meaning of validity in qualitative studies. *Education and Rural Areas, 23*(1), 287-301.
- Song, M. O., Lee, S. J., & Kim, H. J. (2010). Parents response for the therapy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center for special education-centered on parents of occupational therapy support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8*(1), 51-60.
- Spencer, K. C., Turkett, A., Vaughan, R., & Koenig, S. (2006). School-based practice pattern: A survey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Colorado.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0*(1), 81-91.
- Vincent, R., Stewart, H., & Harrison, J. (2008). South Australian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occupational therapy reports.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5*, 163-171.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2016). *WFOT position statement: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in school-based practice for children and youth*. Retrieved 10 June, 2022, from <https://www.wfot.org>

Abstract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Work Experience of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Bae, Wonjin*, Ph.D., O.T., Jung, Nam-Hae**,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g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eo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meaning of work experience of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Methods : This study was a phenomenological study. The participants were 7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all of whom were female with working experience of 5 years. One-on-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m about their work experience as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s, and additional interview details were confirmed by e-mail.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subjects. The researcher listened to the recordings several times prior to transcribing and analyzed the interviews according to Colaizzi's research method.

Results : A total of 2 themes and 10 sub-themes were derived. Challenges and hopes were drawn as themes. The challenges theme included sub-themes administrative work burden, restriction of physical environment, lack of awareness of teachers, unstable employment, and legal restrictions. There were sub-themes such as sense of mission for children, team members with the same goal, children who want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teacher's satisfaction, and respon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Conclusion :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support for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qualitatively improved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for special education subjects.

Key words : Children with disabilities, Phenomenological research,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y, Special education, Treatment support